

도내 대입수능 올해 1만7100명 응시

접수 결과 재학생 지원자 감소·졸업생은 늘어

2023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응시 원서접수 마감 결과, 전북지역 지원자 수는 1만7100명으로 전년 대비 180명(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학생 지원자는 감소하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재학생이 1만3787명으로 지난해보다 483명이 줄어든 반면 졸업생 지원자는 3,298명,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424명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273명, 30명이 늘었다. 지원자 비율은 각각 재학생 78.2%

졸업생 19.3%, 검정고시 출신은 2.5%를 보였다.

성별 분포는 남자 8,572명(50.12%), 여자 8,528명(49.87%)으로 비슷한 비율이다.

원서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국어 영역의 경우 화법과 작문 1만2,500명(73.1%), 언어와 매체 4,537명(26.5%)으로 화법과 작문 과목이 약 2.8배 많은 수준이나, 지난해에 비해서는 화법과 작문이 3.1% 감소하고 언어와 매체는 2.9% 증가했다.

수학 영역의 경우 미적분 7,871명(46%), 확률과 통계 7,833명(45.8%), 기하 745명(4.4%)으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 선택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영어 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1만6,943명(99.1%)이 선택했으며, 필수 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전체 지원자 1만7,100명이 모두 선택했다.

탐구 영역의 경우 사회탐구 영역 7,606명(44.5%), 과학탐구 영역 8,396명(49.1%), 사회·과학탐구 영역 664명(3.9%), 직업탐구 영역 113명(0.7%)으로 나타났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전체 지원자 중 1,960명(11.5%)이 선택해 지난해보다 1.3% 늘었다.

한편 전국 수능 지원자는 50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791명 감소했고 전국 대비 전북 지역 수험생 비율은 3.4%로 17개 시도 중 8위를 차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졸업생 지원자가 증가한 데에는 정시전형에 대한 합격 기대감이 확인된 데다 문·이과 통합수능 첫 해의 시행착오를 겪은 N수생이 올해 대거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면서 "현재로서는 통합수능 체제에서 재수생의 성적이 더 좋을 것이라고 추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남은 기간 수험생들은 건강을 잘 지키면서 저마다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게임과학고 송정기 학생 '금메달'

전국기능경기대회 게임개발직종서 1위 차지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게임개발직종에서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2학년 송정기 학생이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회는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 경남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와 경남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게임과학고는 게임개발, 그래픽디자인, 정보기술 3개 직종에 9명이 출전해 게임개발직종에서 2학년 송정기 학생이 금메달을, 3학년 형승환·2학년 이도현 학생이 각각 장려상을 받았다. 또 정보처리직종에서는 3학년 허종명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총 4명의 학생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게임개발직종에서 김태현 학생이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게임개발직종에서 송정기 학생이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는 세계 최초 게임특성화 중등교육기관의 명성을 되찾았다.

금메달을 수상한 송정기 학생은 "지바대회와 전국대회를 준비하면서 누가 봐도 잘 만들었다고 얘기가 나올 만큼의 게임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특히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고 힘이 돼 준 선생님들과 친구들과의 도움이 컸다"면서 "앞으로 이 대회를 계기로 더 성장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병훈 교장은 "출전한 학생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지켜보면서 금메달을 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앞으로도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는 컴퓨터게임개발과와 소셜미디어개발과에서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전라북도에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13개 직업계고 학생 65명이 21개 직종에 참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기초지자체와의 교육협력 사업 '탄력'

도교육청-김제시·완주군,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 체결...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교육분야 협력 행정 강화

전북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 간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에 탄력이 붙었다. 서거석 교육감은 6일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차례로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 2일 익산시와의 협약에 이은 것으로, 도교육청은 올해 14개 시군 전체와의 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이들 기관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분야 협력행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4차산업혁명에 따른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



서거석 교육감은 6일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와 차례로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협력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협

의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 협력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전북교육청과 손잡고 질 높은 교육체계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삼봉신도시 내 중학교 신설, 옛 청안초 부지 활용 방안 등 교육청과 협력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에 김제시, 완주군과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협약을 맺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자"고 답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이 6일 이침 전주 효천초등학교를 방문해 원격수업 진행 상황을 살펴봤다. 이날 서 교육감은 효천초 3~6학년 교실에 직접 들어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들을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 사회복지시설 방문

추석 맞아 안골노인복지관 방문... 시설이용자·관계자 격려

서거석 교육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일 안골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안골노인복지관은 활동적 노후생활의 거점기관으로써 지역사회의 다기능 노인종합복지센터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서 교육감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치고 태풍 등 자연재해까지 겹쳐 도민들이 삶이 어려운 때에 공직자로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주변의 이웃들을 돕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추석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지난 8월 29일부터 도내 사회복지시설 24개소를 방문해 쌀, 화장지, 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총에이치에스장학회, 장학금 수여

전북교총에이치에스장학회(이사장 이기종)는 지난 5일 회관 3층 회의실에서 도내 시·군 지역별 2022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13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장학금 600여 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학생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학업에 열중하는 학생들을 지원했다. 장학회에 따르면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해마다 추진해 왔다.

특히 작년 12월 불의의 화재 사고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완주군의 초등학교 형제를 대상으로 긴급 생활형 장학금을 지원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전국 드론축구대회 '우승'

드론축구단 '에어브레인'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 소속의 드론축구단인 에어브레인이 2022 경상북도 전국드론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3~4일 이틀 간 포항 오천체육문화타운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전국에서 32개 팀(1부 8개 팀·2부 8개 팀·3부 16개 팀)이 참가해 그간 갈고 닦은 기량을 겨뤘다.

이 대회 2부 리그에 출전한 우석대학교 에어브레인은 예선 A조 1위로 본선 4강에 진출 B조 2위인 동탄드론을 2:1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한국교총에A를 2:0으로 누르고 2부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한편 우석대학교 에어브레인은 이 대회 우승으로 창단 2년 만에 1부 리그로 승격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패션산업학과 창업동아리, 지역기업과 '콜라보'

'e-clothing' 동아리, 커넥트와 사업 활동 보고회... 실제 비즈니스업무 참여기회에 학생들 '호응'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창업동아리 'e-clothing'은 지난 5일 전주대 창조관에서 (주)커넥트와의 그린클로셋 사업 활동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커넥트는 2018년 전주에 설립된 전국 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마케팅 대행 사회적 기업이다. 최근 객체형 1대 1 분석 데이터 기반 패션 큐레이팅형 중고의류 공

유 서비스인 그린 클로셋을 런칭했다. 이에 'e-clothing'은 지난 5월 그린클로셋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 4개월 간의류 관리 및 패키지 개발 업무를 진행해왔다.

박하숙 대표는 "지역기업으로서 대학 동아리팀과의 프로젝트 협업으로 큰 도움을 받았다"며 "향후

사업이 본격화될 때 'e-clothing' 학생들을 우선 채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e-clothing' 대표 김서정(3년)은 "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제품관리와 개발 업무를 회사 팀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창업동아리 'e-clothing'을 지도하고 있는 박현정 교수는 "학생들이

상품 비인과 제품 관리부터 패키지 개발까지 실제 비즈니스 업무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동아리팀의 지역기업과의 실질적 협업이 계속돼 졸업 후 새로운 취·창업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패션산업학과는 매년 4년간의 팀의 결실과 노력을 선보이는 졸업작품 패션쇼를 진행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GTEP사업단, 베트남 박람회서 지역기업 수출 성과

코스모뷰티 미용박람회 참가... 실제 판매 수익 성과·다수 해외 바이어 상담으로 계약 기대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업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 단장 김민호)은 최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2022 코스모뷰티 베트남 미용박람회'에 참가, 지역 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업단 소속 박상하·이서현·최지혜 학생은 이번 박람회에서 전북 기업인 '썸앤드'의 향수

와 입문제, 수분크림 선크림, 핸드크림 등의 샘플을 판매하고,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통해 3천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 추진 중이다.

또한 장정운·최희수·한은지 학생은 '새봄코리아'의 한국의 전통을 담은 수제비누, 수제향초, 방짜유기 제품을 샘플 판매와 상담을 통해 7만500 달러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

다.

마미령·송지훈·천호원 학생은 무역학과 BK21 E2G사업단과의 공동 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기업인 '데마퀸'의 롤링기와 모공브러쉬, 삼푸브러쉬 등을 전시·판매했다.

이들은 가져간 샘플을 모두 현장에서 판매했고, 23건에 20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이 박람회를 통해 동남아시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쇼피'에서 제품 주문이 들어오고 있어 향후 더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라이브커머스 역량강화 교육 성료

전주대학교 이노폴리스캠퍼스사업단(단장 이상우)은 지난 5~6일 1박 2일에 걸쳐 남원에서 2022년 이노폴리스 캠퍼스 라이브커머스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 및 운영 방법 등의 이론과 실무교육을 집중했다. 특히 라이브커머스 스피칭 교육에는 방송 진행 노하우 및 말하기 등의 실습으로 교육 참여도를 높였다. /장은성 기자

이번 교육은 온라인판로지원사업으로 라이브커머스 입점에 앞서 (예비)창업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실무재반교육으로 실시됐다. 완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및 라이브커머스를 직접 운영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라이브커머스 시나리오 및 방송 콘셉트, △스피칭 및 진행 노하우, △장비 구